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탄 산업 장기 발전 프로그램]

No. 845 | 2012. 2. 15.

생산량 대폭 늘려... 1200억 달러 투자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변호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석탄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석탄 소비량은 1억 톤 정도로 세계 3위 수입국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석탄 산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공급이 석탄 수요를 따르지 못해 2013년부터 공급량이 약 600만 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석탄은 확인 매장량만 1570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8.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2011년 소련 해체 후 석탄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했다. 총생산량은 3억3610만 톤으로 2010년 대비 4% 증가했다. 수출도 2010년 대비 3.1% 증가한 1억2000만 톤을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 1월 24일 '2030년 석탄 산업 장기 발전 프로그램(이하 석탄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은 8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행 연방 사업, 분야별 전략, 석탄 산업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기존 결정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은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30년으로 구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중략)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